

##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방향

박창우(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인 경우 혹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하면 모든 사회복지 실천이 기독교 복지실천, 교회사회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기독교 복지란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관에 부합하는 경우, 다시 말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실패한 원인을 자원과 기술의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인간관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가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기존 사회복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정하신 목적들을 달성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하나님을 배제한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인간이 고안해 낸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인간의 영적 욕구를 간과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복지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사회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절대시하거나 이상시해서는 안 되고, 수정가능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개방성과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육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는 물론이고 영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제공해야 한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 기독교 복지, 사회보장

---

2009년 2월 26일 접수; 3월 20일 1차 수정; 4월 18일 게재확정.

- I. 문제 제기
- II.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인간
- III. 기존의 사회복지 비판
- IV. 기독교 복지의 방향
- V. 결론

## I. 문제 제기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조직적·체계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인 사회복지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인간에게만 실현가능하다.

사회복지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란 인간에게만 실현가능하다. 만일 인간이 동식물과 같이 창조적 능력으로 자기의 유한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면 인간에게는 사회복지가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유한·작의존적 존재이면서 자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이중적이며 역설적인 존재<sup>1)</sup>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즉 사회복지

1)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과 한계에 종속된 피조물이다. 또한 인간은 자기 인생이 짧음을 알고, 이것을 앞두고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현세를 초월하려

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sup>2)</sup>.

역사적으로 인간은 고대의 자선과 박애라는 방법에서부터 현대 국가의 제도적 사회보장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시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서부터 거시적인 사회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방법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교육 수준,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향상되었고, 타인의 의존과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향상되었다. 공중보건, 빈곤율, 의료서비스, 교육 및 노동환경 등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인간의 삶의 조건은 분명 나아지고 있으며(Easterbrook, 2004: 55-101), 앞으로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사회복지적 노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너무도 많이 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불평등과 부정의와 불만족이 만연하고, 개인, 사회, 계급, 세대, 민족, 국가 간 갈등 및 분쟁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빈곤, 불평등, 소외, 비인간화 등과 같은 문제는 더욱 더 심해지고 악화되고 있다. 인간이 존재한 이래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고난에 아직까지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사회복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자원과 기술이 부족<sup>3)</sup>했기 때문인가? 더 나은 기술과 더 많은 자원이 투

는 자유스러운 영혼이다"(Niebuhr, 1941a: 1).

2) 의존성, 유한성이라는 인간의 특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며, 자기 초월적인 인간의 특성은 사회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3) "대지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

입되었다면 과연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자원과 기술의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인간관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가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미약했고,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우리가 그 동안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주로 생각해 온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것, 즉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how)'가 아니라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what)'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교 복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Schumacher, 1989: 46)".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인 경우 혹은 성경을 인용하기만 하면 모든 사회복지실천이 기독교 복지실천, 교회사회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 복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인간

세계관이란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들이다(Sire, 1976: 8).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여 주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인간은 본질상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개인의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양승훈, 2005: 35).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세계관 중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을 말한다(이승구, 2004: 16).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이라는 뼈대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양승훈, 2005: 47-48).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인간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 1. 창조 관점에서 인간 :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창조 관점에 근거하면 우선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설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인간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Erickson, 1993: 112).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채워주시는 무한한 자원이시고 인간들에게 자신의 자원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가려 하였고(김세윤, 1997: 25-27),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삶을 선택하였다.

한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이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며 동시에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Hoekema, 1990: 28).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을 위탁받은 존재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서 전인(全人)적인 존재이다(Hoekema, 1990: 359-360). 인간은 육체와 영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상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이고, 이 중에서 어느 하나 만을 따로 분리하거나 독립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육체와 영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하게 지음 받은 피조물이고, 영-육 통일체로서 전인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고, 육체와 영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타락 관점에서 인간 : 죄인으로서의 인간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독립성을 지닌 인격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결단력을 지니며, 목적을 세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소유한 존재이다(Hoekema, 1990: 15).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특징인 자유(freedom)와 피조물의 특징인 결핍(necessity)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상반된 두 가지 특성을 가짐으로써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불안<sup>4)</sup>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이러한 불안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일이다(김세윤, 1997: 16-19).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초월성과 자유를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기의 유한성을 부

4) "불안은 유한한 자기가 자기를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자기 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한성처럼 존재론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불안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극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유한한 존재인 인간도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Kierkegaard, 임규정 역, 2000: 67)".

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부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자신의 유한성에 기초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를 잘못된 욕망에 몰입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Niebuhr, 1941a: 180-182).

이렇게 죄의 본질인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타인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진정한 자아로부터도 소외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적인 소외로 인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다(김세운, 1997: 20). 인간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등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독립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이고,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의 활로를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리는 행위였다(김세운, 1997: 20).

이와 같이 인간을 타락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선포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을 의미한다.

### 3. 구속 관점에서 인간 :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다. 하지만 범죄 함으로 인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다(Hoekema, 1990: 31). 즉, 죄로 인해 인간의 구조(structure)<sup>5)</sup>가 변한 것이

5) "구조란 창조의 질서, 즉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물, 그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조는 창조의 법, 달리 말하자면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서양 철학의 전통이 자주 본체나 본질,



아니라, 그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direction)<sup>6)</sup>이 바뀌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필요가 생겼다. 구속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으로서 구속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처음의 완전하고도 무흠한 상태가 있었으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회복이란,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 혹은 되찾는 것을 의미하고(양승훈, 2005: 96), 구속의 목적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Hoekema, 1990: 53).

또한 구속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구속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속의 문제가 개인 구원에만 집중될 때 신앙은 자칫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다. 자기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성경의 기본 정신과 배치된다(양승훈, 2005: 107).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구조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동정심과 검소한 삶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자기만족적 행동이거나 교만하게 개인적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Sider, 2007: 318). 따라서 구속은 미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불의와 제도화된 악을 바로 잡아 이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포함 한다.<sup>7)</sup>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본성이란 말로 지시하여 왔던 실체를 지칭한다."(Wolters, 2002: 69).

- 6) "방향은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인한 창조의 왜곡 혹은 변질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구속과 회복을 지칭한다. 창조계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뒤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중적인 방향은 개인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공학, 기술, 학문과 같은 문화 현상에도, 노동조합, 학교, 회사와 같은 사회제도에도 적용된다(Wolters, 2002: 69)".
- 7)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하여 인간이 담당할 역할이 있다고 담대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분화를 향한 단속적인 움직임으로 보든, 해방의 단속적 움직임으로 해석하든,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 입장을 취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역사에 기여해야 한다(Wolterstorff, 2008: 138)".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성도 포함되어 있다(Hoekema, 1990: 157). 따라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을 구속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 놓여있지만 창조된 처음의 완전하고도 무흠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존재이다.

### Ⅲ. 기존의 사회복지 비판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실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비중립적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의 기본적 전제들을 고의적으로 배제시켜 왔고, 신앙과 학문을 연관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학 뿐 아니라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학문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은 세계관과 같은 전제들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Marsden, 2003: 48)이 인정되고 있고, 그 많은 세계관 중에서 유독 종교적 패러다임<sup>8)</sup>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8) "과학철학에서는 패러다임을 사고의 패턴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가정들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패러다임은 특정 학문분야에 있어서 연구수행의 정상적 방법에 대한 기준이 된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은 연구관점의 변화, 근본적 가정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탄생으로부터 시

않다<sup>9)</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 페미니스트, 인본주의자가 자신들의 비과학적 전제를 사회복지학에 접목시키듯이<sup>10)</sup> 기독교적 전제인 기독교적 인간관 혹은 세계관을 사회복지학에 접목시킬 것이다<sup>11)</sup>. 다음 절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작된다(이성우, 2004: 2-3)".

- 9)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조지 마스덴은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Marsden, 2003: 49-54). 첫째, 자연 과학의 경험론적 모형을 다른 학술 영역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관한 더 폭 넓은 문제에서 사람들을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인생의 더 넓은 문제에 대하여 경험 과학은 확실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없다. 둘째, 학술적 신념의 기반이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담긴 또 다른 오류는 이런 원칙이 세속 학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입증 불가능한 신념들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사람들 대부분은 유아 살해가 잘못이라고 믿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들은 과학적 논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 많은 공동체에서 일반화된 도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종교적인 관점은 비 경험적이므로 학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질 수 없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은 기독교 계통이므로, 그런 대학들이 지닌 종교적 신념은 몇몇 학술적인 영역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종교적 신념이 사실상 학문과 무관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들은 특별히 비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으므로 학자들은 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그 신념과 학문의 실제적인 연관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말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현대에 와서 순수하게 자연주의적 전제에 기반을 둔 학문이 과도하게 존중받고 있다. 자연주의적 전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면서 경험주의적 지식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현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유형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10) 사회복지학에는 마르크스주의자, 페미니스트 등이 자신의 비과학적 전제를 사회복지학에 접목시킨 급진 사회복지실천모델,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모델 등과 같은 사회복지실천모델이 있다(엄명용 외, 2008: 471-519).
- 11)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틀이며 방식이다. 그것 없이 세상은 혼돈일 뿐이기 때문에 세계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것들(사실, 분류방식, 존재양식, 가치들)을 준다. 과학자들이 이론의존적 관찰을 한다는 쿤의 주장도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연 세계를 본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장대익, 2008: 139)".

## 1. 목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피조물은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피조물의 창조주만이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인간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와 같은 목적들을 수행할 때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정하신 목적들을 달성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에 초점을 맞추었다.<sup>12)</sup>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칼 로저스(Carl R. Rogers)의 인본주의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선과 진리에 대한 판단 역시 인간 스스로 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모든 인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기결정 및 자아실현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보았고, 선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적절히 갖추어진다면 인간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권중돈·김동배, 2008: 303-304). 이와 같이 기존의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배제가 당연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자아실현이라고 라고 설정하였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긍정적인 특

12) "사회복지학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자립을 주요한 가치로 채택하였다(Midgley, 1984: 111)".

성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부정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죄로 인해 방향이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 없이 인간 스스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순진한 가정이다. 인간은 왜곡된 이념과 부당한 속박에서는 해방되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도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종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가 추구했던 목표 즉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립 혹은 자유는, 죄인이라는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진한 목표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2. 자세: 교만

기존 사회복지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교만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불안은 자유와 유한성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서있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Niebuhr, 1941a: 182). 인간이 이와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다(Erickson, 현재규 역, 2000: 162). 하지만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존하기 보다는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제한된 자원과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려 하였다(김세윤, 1997: 25-27).

인간의 자원,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증대시켜 주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능력과 비교하여 볼 때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무한히 신뢰하게 될 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역사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sup>13)</sup>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계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두 해결되고, 평화와 풍요의 상태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사상이 휩쓸고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러한 낙관론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최고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비참하게 파멸하는 결과로 이끌었고,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계발해도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김세운, 1997: 26-27).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사회복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지국가는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릴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개발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완성 및 복지국가의 성공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인간의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사회복지제도가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sup>14)</sup>.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1970년대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빈곤의 유지, 불평등의 심화, 인간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13)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의 U(없다)와 Topos(장소)의 복합어로서 어디에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곧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 유토피아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영구히 달성할 수 없는 것, 지상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유토피아이며, 그 실현 불가능성은 유토피아의 숙명처럼 보인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건설하기가 불가능한 곳을 인간의 힘으로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More, 2003; 194)".

14) "1960년 복지국가는 그 지출을 통하여 거의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낙관주의는 대체되지 않았다. 그 후 20여 년에 걸쳐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의 21개 국가들에서 1960년 평균 GDP의 12.3%에서 1980년에는 GDP의 23.3%까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Gilbert, 2001: 21)".

많은 문제점은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가져왔으며(이강희 외, 2008: 221-226), 결국 인간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다.<sup>15)</sup>

사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이 땅에 유토피아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이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이상사회가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독단적인 유토피아주의 불과하다. 유토피아주의는 이데올로기, 법, 제도와 같은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시하며 우상화한다. 하지만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죄인의 특성을 지닌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은 절대적인 것이 못되며, 상대적이며, 잠정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이장형, 2002: 96-97). 따라서 인간이 고안해 낸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국가를 우상화하는 경향은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 무한하다는 교만에서 비롯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대상: 영적 욕구 간과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김영모, 1999: 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해결하려는 대상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근대화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는 바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일차적인 것들의 부족에서 오는 욕구와 문제들이었다. 18세기 산업혁명 후 기술의 놀라운 진보로 인간은 마침내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일차적인 욕구와 의식주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15)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목표에 완전히 목숨을 걸게 되면 절망으로 끝나기 십상이다"(Newbiggin, 2007: 261).

이 당시 사회복지실천은 구호사업,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후 새롭게 등장한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욕구가 달성된 후, 인간은 사랑, 존경, 자아실현 등과 같은 욕구<sup>16)</sup>와 이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이론에 근거를 둔 상담, 치료, 옹호, 교육, 자문, 사례관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욕구와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인간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 최근 들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추구되어 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spirituality)<sup>17)</sup>이다. 영성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로서 초월적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성이나 성질로 볼 수 있다.

16) 매슬로우(A.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 안전의 욕구(safety need), 사랑의 욕구(love need), 존경의 욕구(self-esteem),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로 분류하고,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Hjelle & Ziegler, 1981: 368-374).

17) 영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영성을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가 있으며 인간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로 자기 발견, 자기 확장, 자기 성숙, 건전한 관계성의 가능성, 우주 및 타인과의 일체감 등 긍정적인 인간의 내재적 자질(박종삼, 2004: 17), '자기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포괄하는 것(최무열, 2004: 318), '초월적인 삶 혹은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내지 가능성(Wakefield, 1983: 361-363)' 등으로 보았다.



사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자, 정신적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 존재는 끝없는 공허와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메마르고 피상적인 삶, 즉 삶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Thompson, 1996: 21-23). 따라서 인간은 항상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한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학에서는 과학적 접근방법이라는 미명 하에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만을 사회복지 실천대상으로 삼고 영적 측면의 인간성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경향을 취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행복을 돕는다는 사회복지학문의 인간의 전체적(wholistic) 큰 그림을 상실하고 편협적이고 제한된 인간이해의 틀 속에 빠지게 되었다(박종삼, 2004: 9). 이와 같이 기존의 사회복지의 인간적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영적 욕구를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IV. 기독교 복지의 방향

기독교 복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경우, 혹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회복지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복지란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관에 부합하는 경우, 다시 말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여 사회복지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별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기독교 복지의 목표, 자세, 대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 1. 목표: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곡된 이념과 부당한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는 헤엄을 칠 자유를 갖고 있지만 물속에 있을 때에만 헤엄을 칠 자유가 있다. 물밖에 나온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보아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자립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자아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기독교 복지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독교 복지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기술하자면, 미시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 거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 인간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오늘 이 땅에서도 살롬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

따라서 기독교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자립 혹은 자아실현이라기보다는 죄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구조적 불의와 제도화된 악이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 2. 자세: 인간의 한계 인정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만든 제도 혹은 법으로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은 교만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은 상대적이며 잠정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임재에 의한 살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야 하는가?

인간 역사에서 살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살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분투해야 마땅하다.<sup>18)</sup> 인간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살림이 임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Wolterstorff, 2008: 149), 살림이 임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9)</sup>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 내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근사치적 접근을 위해 분주히 노력해야 한다.<sup>20)</sup>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 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살림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동시에 인간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 "비록 구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 그 자유의 실행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된다. 인간은 로봇이나 컴퓨터로 작동되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Hoekema, 1990: 390)".

19)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는 희망은 가질 수 없다. 그 나라는 영원에 속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목표라고 한다면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Temple, 2000: 82)".

20) "완전한 사랑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근사치적 접근은 가능하며, 인간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Niebuhr, 1941b: 323-324)".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인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법, 제도와 같은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시하며 우상시하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대적이며 잠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기독교 복지에서는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이라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를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닌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절대시하거나 우상시해서는 안 됨), 부분적인 표적이라는(따라서 수정가능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개방성과 융통성을 지녀야 함)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 3. 대상: 영적 욕구 해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육체적인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와 같은 상이한 부분들의 복합체로서가 아니라 전체성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Hoekema, 류호준 역, 1990: 359).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중 어느 하나만을 따로 분리하거나 독립해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영-육 통일체 혹은 전인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매우 큰 함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영-육 통일체 혹은 전인적 존재로 본다면 기독교 복지는 당연히 인간의 육체적 욕구와 영적인 욕구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전인적 인간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고, 영적인 욕구와 이를 해결하려는 서비스를 비과학적, 비중립적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하였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복지는 우선 인간의 영적 측면을 인정해야 하고, 묵상, 기도, 봉사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up>21)</sup>

## V. 결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how)'가 아니라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what)'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21)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 : 4)' 는 말씀은 인간에게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기독교 복지는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 성찰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며,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정하신 목적들을 달성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하나님을 배제한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죄인의 특성을 지닌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은 절대적인 것이 못되며,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것이 되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고안해 낸 사회복지장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영적 욕구를 간과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기존의 사회복지가 잘못된 세계관과 인간관에 근거하여 실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관과 인간관 즉,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인 사회복지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 복지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복지가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독교 복지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사회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며, 기독교 복지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사회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절대시하거나 이상시해서는 안 되고, 수정가능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개방성과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육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

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독교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최근 들어 기독교 복지, 교회사회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독교 복지의 방향을 제안하는 기초적인 연구로 기독교 복지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실천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복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에 의존하며 사회복지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독교 복지가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 살면서 문화의 다원성 뿐 아니라 종교의 다원성, 나아가 영성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현 시대에 기독교의 영성을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sup>22)</sup>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인간의 삶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를 통해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깊게 단절될 수도 있다.<sup>23)</sup> 이는 분명 기독교 복지가 지양해야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하나님의 대체물로

22) 기독교 복지에서 개발해야 할 영성은 비인격적 신과의 연합과 같은 것은 신비주의 영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진리에 근거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바탕이 되는 영성을 말한다.

23) 유럽의 발전된 사회복지제도와 텅 빈 교회를 보라. 이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향의 사회복지제도는 오히려 인간을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어느 면이 비기독교적이고 어느 면이 기독교적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중돈·김동배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세운 (1997),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 김영모 (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박종삼 (2004), "교회사회사업의 영성적 실천방법 - 거시적 측면에서," 『교회사회사업』, 2호.
- 양승훈 (2005),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엄명용 외, (2008),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강희 외, (2008), 『사회복지발달사』, 경기: 양서원.
- 이성우 (2004), "정책분석의 패러다임과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적 접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3).
- 이승구 (2004),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이장형 (2002), 『리인홀드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과 인간이해』, 서울: 선학사.
- 장대익 (2008),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경기: 김영사.
- 최무열 (2004), "교회사회사업의 영성과 봉사신학," 『교회사회사업』, 2, 318-340.
- Easterbrook, Gregg (2004), *The Progress Paradox - How Life Gets Better While People Feel Worse*, 박정숙 역 (2007), 『진보의 역설 - 우리는 왜 더 잘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서울: 에코리브르.
- Erickson, Millard J., (1983), *Christian Theology* 현재규 역 (2000), 『복음주의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Erickson, Millard J. (1993), *The Doctrine of Humanity & Sin*, 나용화 외



- 역 (1993), 『인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ilbert, Neil, *From Welfare State to Enabling State* (2000), 김영화 외 역 (2001),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 Hjelle, L. and D. Ziegler (1981), *Personality Theories*, London: McGraw-Hill.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1986), 류호준 역 (1990),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ierkegaard, Soren (1844), *The Concept of Anxiety*, 임규정 역 (2000), 『불안의 개념』, 경기: 한길사.
- Marsden, George M.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조호연 역(2003), 『기독교적 학문 연구 @ 현대 학문 세계』, 서울: IVP.
- Midgley, James (1981), *Professional Imperialism - Social Work in the Third World*, 복지연구회 역 (1984), 『제3세계의 사회사업 - 전문적 제국주의』,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More, Thomas (1516), *Utopia*, 황문수 역 (2003), 『유토피아』, 서울: 범우사.
- Newbi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 Niebuhr, Reinhold (1941a),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1 & 2*,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Schumacher, E. F. (1989), *Small is Beautiful*, 이상호 역 (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 Sider, Ronald J. (1997), *Rich Christians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2007),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 Sire, James W. (1976),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Temple, William (1942), *Christianity and Social Order*, 김형식 역 (2000),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 서울: 인간과 복지.

Thompson, Majorie J. (1995), *Soul Feast -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고진옥 역 (1996),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천』, 서울: 은성.

Wakefield, Gordon S. (1983),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200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

Wolterstorff, Nicholas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2008),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울: IVP.

## ABSTRACT

### Direction for Christian Welfar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Chang Woo Park(Kwan 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of christian welfar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So far, social welfare practices have been recognized as a christian welfare practice if only social welfare practice was carried out by christians or quoting the verses from the Bible. However, the christian welfare implies that the welfare practice which is carried out according to christian world view and human view. In other words, christian welfare practice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uch questions. Who is a human being? What is a purpose of a human being?

This study insists that the reason why the existing social welfare has failed in making humans be truly happy is not because the lack of resources or skills, but because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based on the incorrect view of world and human.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First, when establishing goals, the existing social welfare has been focused on the self-realization tending toward independence from God and excluding God rather than seek for the happiness by achieving the goals established for humans by God. Second, the existing social welfare showed the tendency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s and welfare services designed by humans became absolute and idolized things. Third, the existing social welfare has overlooked the spiritual desire of humans.

The suggestions proposed by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ultimate goals of christian welfare is to seek for the plans of God, which were designed for the sake of human beings and the society. Second,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s and services must not be regarded as absolute or idolized, but the systems shall remain open and flexible, so that they can be modified and better alternatives may be found out. Third, christian welfare should provide spiritual service as well as physical and mental services.

Key Words: Christian-World-View, Christian-Human-View,  
Christian Welfare, Social Welfare